

화수분 두산, 숨은 원석 감추기 '007 작전'

매번 40인 외 알토란 선수 출혈 롯데, 포수 지명 여부도 큰 관심

2019년 KBO 2차 드래프트가 2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2년마다 시행되는 이 행사를 위해 KBO는 팀당 40인 보호선수 명단을 10일까지 제출받았다. 각 구단은 40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최대 3명까지 지명할 수 있다. 2020년 프리에이전트(FA) 시장에 대어급이 드문 까닭에 올해는 2차 드래프트에 10개 구단의 눈길이 더 가는 형편이다. 거액이 오가는 FA 거래가 2차 드래프트를 통한 '이삭줍기'에 밀리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올해 2차 드래프트의 이슈를 미리 살펴본다.

●두산, 또 얼마나 빠릿길까?

2차 드래프트는 2011년 도입됐다. 2017년까지 4차례 진행돼 총 117명이 팀을 옮겼다. 팀별로는 두산 베어스에서 가장 많은 19명의 선수가 빠져나갔다. 이어 키움 히어로즈 17명, LG 트윈스 16명이다. 선수자원이 풍부한 서울 3개 팀에서 집중적으로 유출됐는데, 특히 '화수분' 이미지가 강한 두산은 매번 대규모 출혈이 불가피했다. 2011년 이재학(NC 다이노스), 김성배(롯데 자이언츠)를 시작으로 2013년 임재철(LG), 2015년 장민석(한화 이글스), 2017년 오현택(롯데), 이성근(삼성 라이온즈) 등 당시로선 주전급 또는 알토란 유망주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2017년부터는 2차 드래프트 유출 한도가 팀당 4명으로 제한됐다.

올해도 단연 두산이 주목받고 있다. 다른 팀에서라면 1군 불박이로 활약했을 적잖은 선수들이 40인 명단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깜짝 놀랄 만한 선수들도 여럿 40인 보호선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두산은 역시 강하다"는 총평이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반대로 두산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40인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 선수들의 심적 동요를 막기 위해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방 비상' 롯데는 포수 지명할까?

롯데는 FA 포수 영입을 포기했다. 14일 월소속구단 키움과 3년 총액 18억 원

에 계약한 이지영 외에도 시장에는 김태균이란 또 한명의 수준급 FA 포수가 남아있지만, 보상선수 유출과 '오버페이'를 우려해 FA 영입 포기를 선언했다. 안방보강을 위한 현실적 해법은 이제 외국인 포수 영입과 2차 드래프트 지명뿐이다.

올 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2차 드래프트 지명권을 행사함에 따라 롯데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과연 롯데가 일반적인 예상처럼 2차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지명권을 포수 획득에 행사할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타 구단들의 궁금증은 크다. 당장 시즌 9위 한화부터 롯데의 2차 드래프트 전략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화는 마운드 보강을 원하기 때문이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야구국가대표팀 좌완 원투펀치 김광현과 양현종의 2020도쿄올림픽 출전은 미지수다. 김광현의 메이저리그 진출 시도 등 많은 변수가 뒤따른다. 프리미어12를 마치고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김광현(왼쪽 사진)과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양현종.



인천국제공항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광현종'은 도쿄올림픽으로 향할 수 있을까

(김광현+양현종)

김광현, ML 진출하면 차출 어려움 양현종도 내년 태극마크 장담 못해

좌완 원투펀치를 2020도쿄올림픽에서도 볼 수 있을까.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한국 야구대표팀은 슈퍼라운드 2위로 통과한 뒤 맞이한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최종 3-5로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 최고의 좌완투수 양현종(31·KIA 타이거즈)과 김광현(31·SK 와이번스)이 동반 출격했다. 서울 예선에서 호주와 캐나다를 상대로 나란히 호투해 '에이스'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러나 일본으로 넘어간 뒤 펼쳐진 슈퍼라운드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다. 양현종은 미국과의 경기에서 5.2이닝 1실점으로 좋은 투구를 했지만, 김광현이 대만전에서 무너졌다. 3.1이닝 3실점으로 예상보다 일찍 마운드를 내려갔다.

대표팀이 결승전에 오르면서 두 투수는 다시 등판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양현종만이 선발로 마운드에 올라 3이닝 4실점을 마크했다. 김광현은 이날 불펜으로 등판할 예정이었지만, 피로 누적을 감안해 김경문 감독이 기용하지 않았다. 두 투수에겐 아쉬움이 남는 국제대회였다. 대표팀은 내년 올림픽에 나가게 됐지만, 일본에게 연달아 두 번 졌다는 것만으로 내상을 입었다.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는 올림픽 무대에서의 만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둘이 내년에도 태극마크를 달 것이라 보장은 없다. 당시의 컨디션을 쉽게 예측할 수 없고, 매년 대표팀에 제기되는

차세대 에이스 부재도 당사가 되면 또다시 이슈로 떠오를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김광현은 현재 메이저리그 진출을 꿈꾸고 있다. 빅 리그 구단과 계약을 맺어 40인 로스터에 합류하게 되면 류현진(32)과 마찬가지로 대표팀 차출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번 대회가 두 동갑내기 마지막 동반출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200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대표팀을 지켰던 두 투수는 10년 넘게 태극마크를 달고 헌신했다. 언제가 마지막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다. 둘의 마지막 태극마크는 과연 언제일까.

도쿄 | 장은성 기자 award@donga.com

야구

3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비선출 LG 한선태의 새 시즌 목표

"1승 1홀드 1세이브"



한선태

"새 시즌 목표는 정해졌어요. 1승 1홀드 1세이브입니다."

LG 트윈스 한선태(25)의 꿈이 커졌다. 비선수출신의 타이틀을 깨고 1군 데뷔를 이뤄낸 그는 이제 프로선수로 완전한 성장을 계획한다.

한선태는 올해 KBO 38년의 역사를 한 획을 그었다. 학생 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단 한번도 선수로 등록된 적이 없는 일반인으로 프로신인지명에 이어 1군 데뷔까지 이뤄냈다. 첫 해 1군 성적은 6경기 7.1이닝 평균자책점 3.68이다.

한선태는 "1군에서 생각보다 기회가 빨리 왔다"고 돌아봤지만, 성과만큼 개인적인 아쉬움도 컸다. 8월 오른쪽 골반을 다치면서 데뷔 시즌도 함께 끝난 까닭이다. 이천 마무리 캠프에서 골반 운동을 하고 코어 근육 위주의 스트레칭을 하는 등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동시에 지구력과 변화구 구사 능력을 끌어올리는 기술적 보완도 이뤄지고 있다. 한선태는 "오른손 타자를 상대로 인코스의 공을 던지는 것과 체인지업을 잘 던지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구 시 강한 힘을 실기 위해 체격도 키웠다. 입단 당시 78kg이었던 몸무게를 86kg까지 늘렸다.

개인 목표는 명확하다. "1승 1홀드 1세이브가 목표"라고 밝혔다. 1군 투수라면 어렵지 않은 숫자지만 1군 엔트리에 올라야 가능한 목표다. 확실한 1군 투수가 되고 싶다는 소박하지만 원대한 꿈이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편집 | 김태건 기자 bong82@donga.com

탁월한 유지비 절감!

냉난방비 절감은 기본
공간 절약까지~

인버터 초강력 냉,난방기

**상가, 교회, 사무실, 식당 등
업소용 냉·난방기
최우수 업체!**

1. 초기구입자금 **0원** (최장48개월 할부 렌탈 리스)
2. 무담보/무보증 (사업자등록증만으로 가능)
3. 카드무이자할부
4. 무료견적

인버터 냉난방기의 탁월한 선택

- ✓ 스마트 절전 가능
- ✓ 3단계 온노필터 항균시스템 - 쾌적한 실내환경!
- ✓ 친환경 냉매작용(R-410)
- ✓ 쾌속제상기능 - 강추위에도 일품한 난방능력!
- ✓ 어떤현장에도 설계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제품!

업소 / 대형공장 / 기업 공조시스템

에어컨월드 | 전국무료 상담전화 |

1588-4597

(24시간 상담가능)